



빌레몬서의 내적간본문적 및 간본문적 해석

Reading the Letter to Philemon Intratextually and Intertextually

저자 (Authors)	송영목 Song, Youngmok
출처 (Source)	신약논단 23(4) , 2016.12, 1081-1114(34 pages) Korean New Testament Studies 23(4) , 2016.12, 1081-1114(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신약학회 The New Testament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3063
APA Style	송영목 (2016). 빌레몬서의 내적간본문적 및 간본문적 해석. 신약논단, 23(4), 1081-1114
이용정보 (Accesse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18.233.220.*** 2020/02/17 17: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빌레몬서의 내적간본문적 및 간본문적 해석

송영목

(고신대학교 교수)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빌레몬서를 내적간본문성과 간본문성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단어들과 문장들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유용한 방법론인 담론 분석을 통해서 빌레몬서가 논리적 응집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고도의 논리적 응집성을 의도한 것은 교차대칭구조와 수사학적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기에 주석가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모호함에 직면한다. 이런 의미론적 간격을 매우기 위해서 주석가는 빌레몬서를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기록된 바울의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와 비교해야 한다. 이 연구는 빌레몬서를 간본문과 내적간본문적으로 읽을 때,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라는 설득의 세 요소가 서신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남을 논증할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혁적 능력에 근거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은유와 특히 교차대칭구조를 통한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한다.

주제어

빌레몬서, 골로새서, 내적간본문성, 간본문성, 논리적 응집성

I. 서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¹⁾ 그런데 무엇보다 내적(intra) 간본문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편지 전체에 고도의 논리적 응집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골로새서와의 간(inter)본문적 해석도 요청되는데,²⁾ 이 두 서신은 동일한 시간과 배경을 가진 옥중서신이기 때문이다.³⁾ 이 글은 먼저 빌레몬서의 내적간

- 1) 빌레몬서를 문법·문학·언어적으로 해석한 것과 바울 당시의 노예제도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해석한 시도가 많다. S. E. Porter,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ritical?: An Evaluation Using Philemon as a Test Case," in S. E. Porter · J. T. Reed (eds.), *Discourse Analysis and the New Testament: Approaches and Resul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47-70; M. Barth-H. Blanke, *The Letter to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0), 1-102. 빌레몬서의 해방신학적 페미니즘 해석으로는 S. Bieberstein, "Disrupting the Normal Reality of Slavery: A Feminist Reading of the Letter to Philemon," *JSNT* 79(2000), 105-116.
- 2) 간본문적 해석의 이론에 관해서는 S. Moyise, "Intertextuality and Biblical Studies: a Review," *Verbum et Ecclesia* 23(2002), 418-431을 번역한 송영목, 『신약해석학: 구원계시사적 해석을 중심으로』 (부산: 신언출판사, 2006), 247-263을 보라.
- 3) 참고로 골로새교회의 집사 아킵보가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가설을 위해서, John Knox의 주장(1935년)을 이어받은 L. Cope, "On Rethinking on Colossians Connection," *Biblical Research* 38(1985), 45-46을 보라. 아킵보가 골로새교회를 대표하여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파송했고,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의 주교가 될) 오네시모를 자신과 계속해서 사역하도록

본문성을 밝힘으로써, 바울의 사고구조와 수사학적 구조 그리고 교차대칭 구조에 담긴 논리적 일관성과 치밀한 병행을 확인할 것이다. 내적간본문성을 밝히기 위해서 구문분석과 구조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연결하는 간본문적 해석을 통해서, 빌레몬서의 짧은 분량 때문에 발생하는 의미의 모호성을 명료하게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해가는 지 연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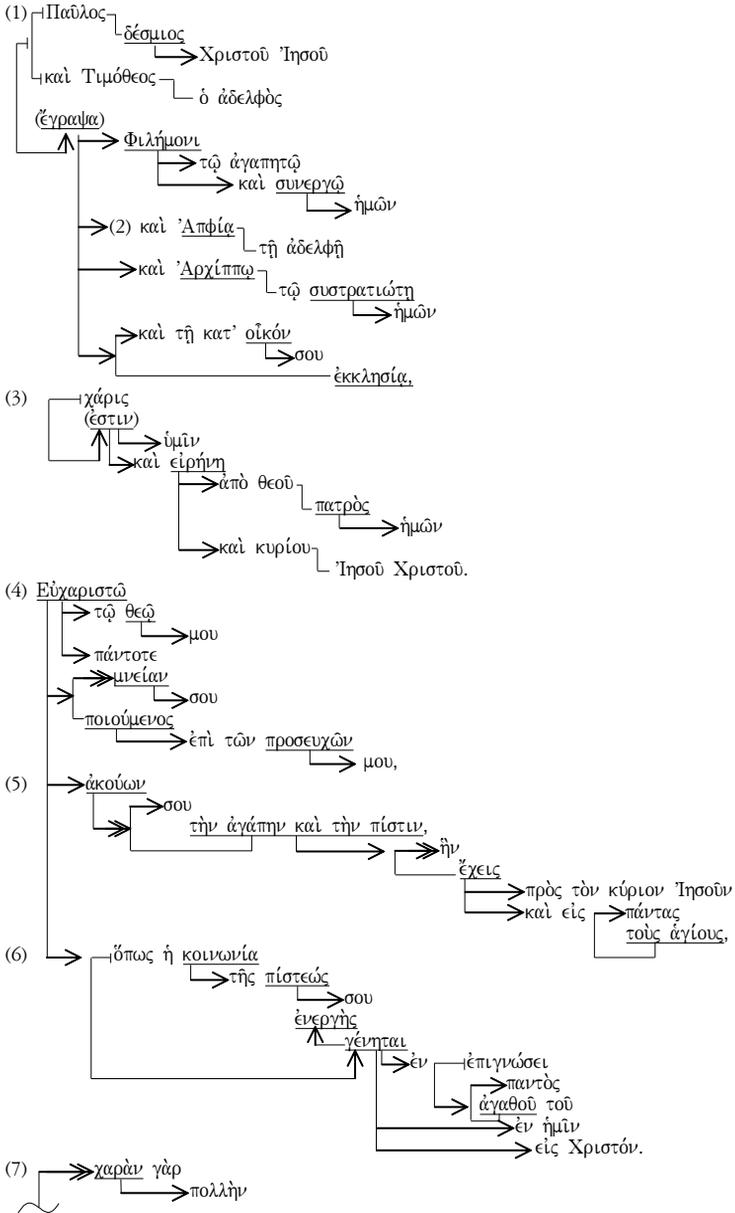
II. 빌레몬서의 내적간본문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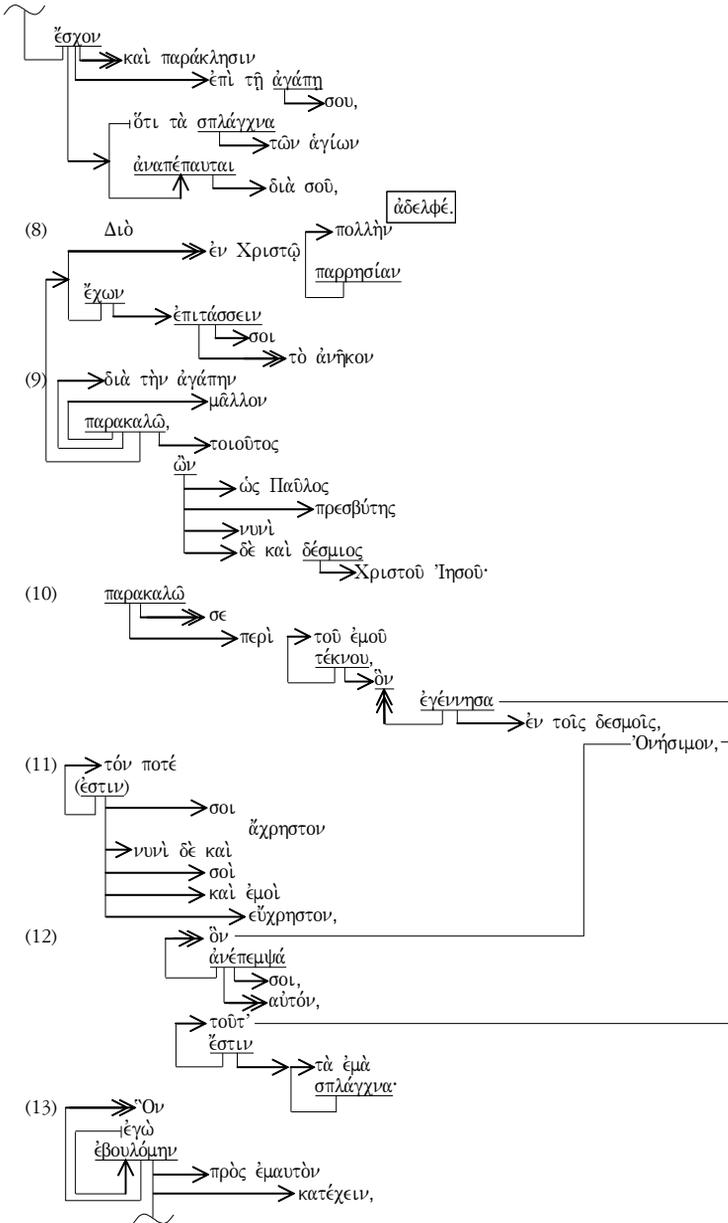
1. 구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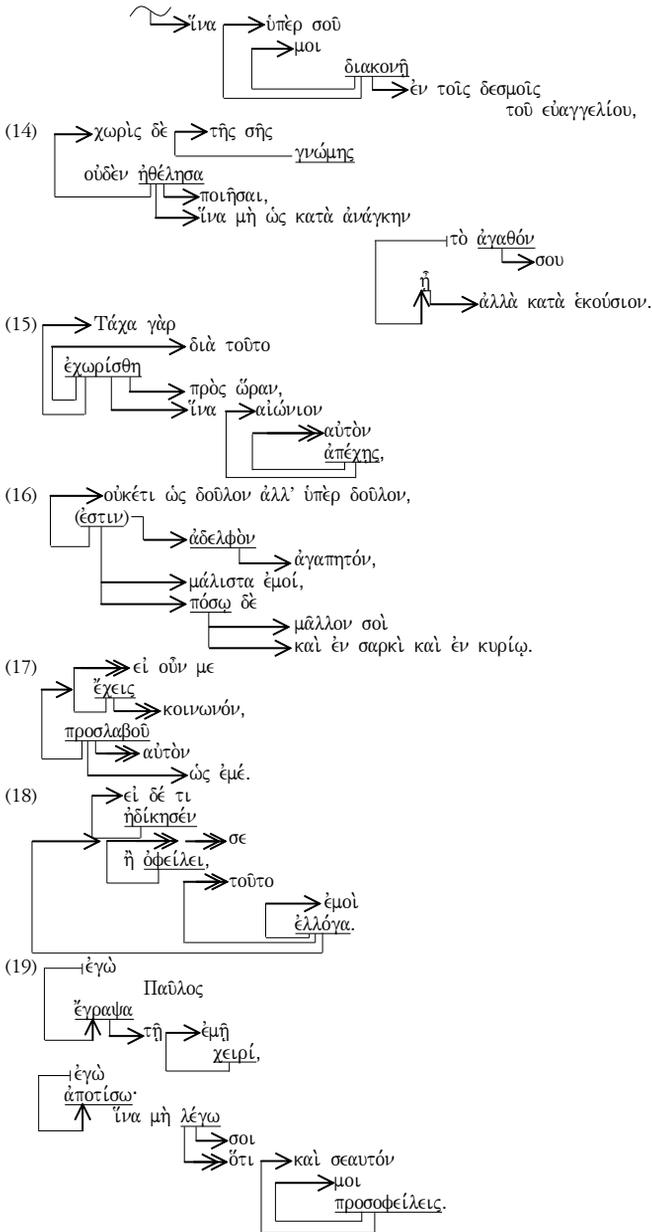
빌레몬서의 내적간본문적(intratextual) 해석은 먼저 각 단어 사이의 관련성을 살피는 구문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단어 사이의 관련성을 치밀하게 밝히는 사고구조 분석의 작은 단계 분석법을 활용할 것이다.⁴⁾ 아래의 표는 빌레몬서에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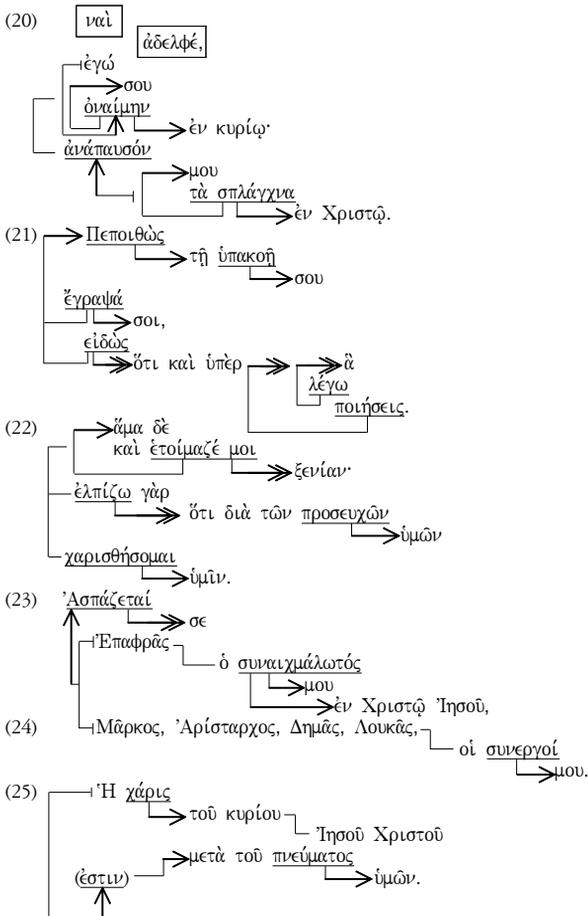
교회의 허락을 위해 간청한다는 가설은 S. C. Winter, "Paul's Letter to Philemon," *NTS* 33(1987), 3-5를 보라. 하지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fugitivus*)라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는 학자가 많다(예. 교부 제롬, 암브로스, 크리소스톰, 그리고 J. B. Lightfoot, C. F. D Moule, D. C. Duling, E. Lohse, N. Perrin, S. L. Harris, D. Guthrie, D. J. Moo, D. E. Garland, C. Osiek, J. G. Nordling, J. D. M. Derrett, M.L. Soards, P. V. Kea, M. Barth, D. L. Barr, P. Stuhlmacher, R. L. Spivey, D. M. Smith, J. D. G. Dunn, P. T. O'Brien, J. T. Burtchaell). 참고. P. V. Kea, "Paul's Letter to Philemon: A Short Analysis of Its Values,"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3(1996), 224.

4) F. J. Van Rensburg · B. J. De Klerk, *Making a Sermon: A Guide for Reformed Exegesis and Preaching* (Potchefstroom: Faculty of Theology, 2005), 34-37.









335개의 단어로⁵⁾ 구성된 빌레몬서에서 동사는 54개로 16%를 차지한다. 바울은 분사(5회; 4[현재 중간], 5[현재 능동], 8[현재 능동], 9[현재 능동], 21절[현재완료 능동])나 부정사(3회; 8[현재 능동], 13[현재 능동], 14절[아오리스트 능동])를 비교적 자주 활

5) 빌레몬서의 본문 비평이 필요한 다섯 구절의 등급은 {A}와 {B}이므로, 크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없다.

용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하면 빌레몬서의 구문은 난해하지 않다. 바울은 1-3절의 인사말에서 동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23-25절의 마지막 인사말에서는 동사(ἀσπάζεται, 23절)를 하나만 사용한다. 참고로 11절과 16절에도 동사가 없다.

회구법은 1회(20절[아오리스트 디포]), 명령법은 4회(17[아오리스트 중간], 18[현재 능동], 20[아오리스트 능동], 22절[현재 능동]), 가정법은 6회(6절은 아오리스트 디포; 8, 13, 14, 15, 19절은 현재 능동) 나타난다. 바울은 직설법은 22회나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현재 시제는 능동의 의미로만 9회 나타난다(4, 9, 12, 17, 18, 19, 21, 22, 23절).

현재완료 시제는 수동의 의미로만 1회(7절), 미완료 시제는 디포넌트로만 1회(13절), 서신 후반부에만 등장하는 미래 시제는 3회(19, 21, 22절),⁶⁾ 아오리스트(능동) 시제는 8회다(7, 10, 11, 14, 18, 19, 21절; 15절은 수동). 바울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며, 분사, 부정사 그리고 가정법에서도 현재 시상을 즐겨 사용한다.

바울의 명사 활용에 있어 ‘바로 내가’(ἐγώ)를 3회(13, 19, 20절)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바울은 관계대명사를 5회 사용하는데(5, 10, 11, 13, 21절), 3회는 남성 단수 대격으로 나타나 오네시

6) 빌레몬서에 미래 종말론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 결과 현재동사가 현재 하고(여기에 문 12, 19, 21절의 현재적 의미의 서신적 아오리스트도 포함됨) 미래 동사는 드물다. C. R. Campbell, *Colossians and Philemon: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91; T. D. Still, “Philemon among the Letters of Paul: Theological and Canonical Considerations,” *Restoration Quarterly* 47(2005), 138. 참고로 문 6절에서 최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E. Lohse, *Colossians and Philemon* (Philadelphia: Fortress, 1989), 195와 모호한 표현인 ‘종말론적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자유’를 주장하는 P. 슈틀마허/한국신학연구실 역, 『필레몬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401-402.

모를 가리킨다(10, 11, 13절). 전치사의 경우 10개 종류가 29회에 걸쳐 사용되는데, ἐν이 10회로 가장 자주 등장한다(6[×2], 8, 10, 13, 16[×2], 20[×2], 23절). 접속사의 수는 많지 않고, 등장 빈도가 드물지만 골고루 사용된다. 바울은 문장의 첫 부분에 강조를 위해 주어 8회(1, 3, 6, 11, 12, 19, 24, 25절), 동사 6회(4, 5, 10, 18, 21, 23절), 그리고 목적어 4회(7, 8, 13, 17절)를 위치시킨다.

2. 담론분석을 통한 표층 및 심층 구조분석

빌레몬서의 내적간본문적 해석은 무엇보다 빌레몬서의 단어와 문장 및 문단의 관련성을 살핌으로 가능한데, 이를 위한 적절한 해석 방법은 J. P. Louw와 E. A. Nida의 담론분석(혹은 콜론분석)이다.⁷⁾ 담론분석을 통한 빌레몬서의 표층 구조는 아래와 같다:

A 인사

1 (1) Παῦλος δέσμιο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καὶ Τιμόθεος ὁ ἀδελφὸς Φιλήμονι τῷ ἀγαπητῷ καὶ συνεργῷ ἡμῶν (2) καὶ Ἀπφία τῇ ἀδελφῇ καὶ Ἀρχίππῳ τῷ συστρατιώτῃ ἡμῶν καὶ τῇ κατ' οἶκόν σου ἐκκλησία,

2 (3) χάρις ὑμῖν καὶ εἰρήνη ἀπὸ θε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B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3 (4) ~~Ἐβραϊστῶ~~ τῷ θεῷ μου πάντοτε μνησίαν σου ποτούμενος

7) E. A. Nida, et al., *Style and Discourse* (Cape Town: South African Bible Society, 1983), 77-82. 다양한 방식으로 빌레몬서의 담론분석이 수행되어 왔다: Porter, 앞의 논문(1999), 47-70; A. H. Snyman, "A Semantic Discourse Analysis of the Letter to Philemon," in P. J. Hartin · J. H. Petzer (eds.), *Text and Interpretation: New Approaches in th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1991), 83-99.

- 4 ἐπὶ τῶν προσευχῶν μου,
- 5 (5) ἀκούων σου τὴν ἀγάπην καὶ τὴν πίστιν,
- 6 ἣν ἔχεις πρὸς τὸν κύριον Ἰησοῦν· καὶ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ἀγίους,
- 7 (6) ὅπως ἡ κοινωνία τῆς πίστεώς σου ἐνεργῆς γένηται ἐν ἐπιγνώσει παντὸς ἀγαθοῦ τοῦ ἐν ἡμῖν εἰς Χριστόν.
- 8 (7) χαρὰν γὰρ πολλὴν ἔσχον καὶ παράκλησιν ἐπὶ τῇ ἀγάπῃ σου,
- 9 ὅτι τὰ σπλάγχνα τῶν ἀγίων ἀπαπέπαισται διὰ σου, ἀδελφέ.⁸⁾

C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

C1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근거한 간청

- 10 (8) Διὸ πολλὴν ἐν Χριστῷ παρησίαν ἔχων ἐπιτάσσειν σοι τὸ ἀνῆκον
- 11 (9) διὰ τὴν ἀγάπην μάλλον παρακαλῶ, τοιοῦτος ὢν ὡς Παῦλος πρεσβύτης νυνὶ δὲ καὶ δέσμιο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 12 (10) παρακαλῶ σε περὶ τοῦ ἐμοῦ τέκνου,
- 13 ὃν ἐγέννησα ἐν τοῖς δεσμοῖς, Ὀνήσιμον,⁹⁾
- 14 (11) τὸν ποτὲ σοι ἄχρηστον νυνὶ δὲ καὶ σοὶ καὶ ἐμοὶ εὐχρηστον,¹⁰⁾

8) 바울은 콜론(colon) 1, 9, 23, 32에 등장하는 ‘형제’와 같은 가족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A.D. 2세기 초에 총독 소(younger) 플리니가 친구 Sabinianus에게 잘못을 범한 자유인을 위해 간청한 편지에는 이 용어가 약하다. C. Frilingos, “For My Child, Onesimus: Paul and Domestic Power in Philemon,” *JBL* 119(2000), 91-92.

9) 10절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맨 나중에 배치하여 빌레몬이 놀라도록 만들기 위한 수사학적 기법이라는 주장은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92.

10) 12절의 내장/심복(σπλάγχνα)은 성적으로 애정 어린 용어이며, 11절의 ‘유익한’(εὐχρηστον)은 주인이 노예를 성적으로 이용하기 쉽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는 J. A. Marchall, “The Usefulness of an Onesimus: The Sexual Use of Slaves and Paul’s Letter to Philemon,” *JBL* 130(2011), 760, 762. 하지만 바울은 주인 빌레몬과 불의를 행하여 빚을 진(18-19절) 종 오네시모 사이의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는다. 참고. 11절의 εὐχρηστον을 ‘매우 그리스도교적인’(즉 그리스도를 모셔 유익한)으로 볼 수 있다는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92; N. T. 라이트/이승호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278; Lohse, 앞의 책(1989), 200.

- 15 ὃν ἀνέπεμψά σοι, αὐτόν,
 16 (12) τοῦτ' ἔστιν τὰ ἐμά σπλάγγνα·
 17 (13) Ὃν ἐγὼ ἐβουλόμην πρὸς ἐμαυτὸν κατέχειν,
 18 ἵνα ὑπὲρ σοῦ μοι διακουῆ ἐν τοῖς δεσμοῖς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19 (14) χωρὶς δὲ τῆς σῆς γνώμης οὐδὲν ἠθέλησα ποιῆσαι,
 20 ἵνα μὴ ὡς κατὰ ἀνάγκην τὸ ἀγαθὸν σοῦ ἢ ἀλλὰ κατὰ ἑκούσιον.
 21 (15) Τάχα γὰρ διὰ τοῦτο ἐχωρίσθη πρὸς ὥραν,
 22 ἵνα αἰώνιον αὐτὸν ἀπέχῃς,
 23 (16) οὐκέτι ὡς δοῦλον ἀλλ' ὑπὲρ δοῦλον, ἀδελφὸν ἀγαπητόν, μάλιστα ἐμοί, πόσω δὲ μᾶλλον σοί· καὶ ἐν σαρκὶ καὶ ἐν κυρίῳ.

C2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근거한 간청

- 24 (17) εἰ οὖν με ἔχεις κοινωνόν,
 25 προσλαβοῦ αὐτόν ὡς ἐμέ.
 26 (18) εἰ δέ τι ἠδίκησέν σε ἢ ὀφείλει,
 27 τοῦτο ἐμοί ἐλλόγα.
 28 (19) ἐγὼ Παῦλος ἔγραψα τῇ ἐμῇ χειρὶ,
 29 ἐγὼ ἀποτίσω·
 30 ἵνα μὴ λέγω σοι
 31 ὅτι καὶ σεαυτὸν μοι προσοφείλεις.
 32 (20) ναὶ ἀδελφέ, ἐγὼ σοῦ ὀναίμην ἐν κυρίῳ.
 33 ἀνάπεμψόν μου τὰ σπλάγγνα ἐν Χριστῷ.
 34(21) Πεποιθὼς τῇ ὑπακοῇ σοῦ ἔγραψά σοι.
 35 εἰδὼς ὅτι καὶ ὑπὲρ ἃ λέγω ποιήσεις.¹¹⁾
 36 (22) ἅμα δὲ καὶ ἐτοιμαζέ μοι ξενίαν·
 37 ἐπίτρω γὰρ ὅτι διὰ τῶν προσευχῶν ὑμῶν χαρισθήσομαι ὑμῖν.

11)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가정교회에서 낭독되었기에 청중의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21절에서 π소리를 가진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수사학적 기교를 활용한다는 견해는 K. D. Lyons, "Paul's Confrontation with Class: The Letter to Philemon as Counter-Hegemonic Discourse," *Cross Currents* 55(2005), 326;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77.

D 마지막 인사

- 38 (23) Ἀσπάζεται σε Ἐπαφράς ὁ συναιχμάλωτός μου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24) Μάρκος, Ἀρίσταρχος, Δημᾶς, Λουκᾶς, οἱ συνεργοί μου.
 39 (25)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με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ὑμῶν.

빌레몬서의 총 25절은 39개의 콜라(colon)로 나누어지는데,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수직적 표지는 다음과 같다: προσευχῶν(기도하다 [2회]; 4, 37),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θεοῦ πατρὸς(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12회]; 1, 2, 3, 6, 7, 10, 11, 23, 32, 33, 38, 39), συνεργοί(동역자[2회]; 1, 38), τὰ σπλάγχνα(내장[3회]; 9, 16, 33), δεσμοῖς(함께] 갇힌 자[5회]; 1, 11, 13, 18, 38), ἐγώ/Παῦλος(나/바울[20회]; 1, 3, 4, 11, 12, 14, 15, 16, 17, 18, 24, 25, 27, 28, 29, 31, 32, 33, 36, 38), ἀδελφέ(형제[4회]; 1, 9, 23, 32), φιλήμονι/σου(빌레몬/너[20회]; 1, 3, 5, 7, 8, 9, 10, 12, 14, 15, 18, 19, 20, 23, 26, 30, 31, 32, 34, 38),¹²⁾ ἀνάπαυσον(평안하다[2회]; 9, 33), χάρις(은혜[2회]; 2, 39), ποιήσεις(행하다[3회]; 3, 19, 35), κοινωνίῳ(교제 [2회]; 7, 24), ἐπίτω(감사하다[2회: 3, 37]).¹³⁾ 이상의 13개의 수직적 표지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동역자 빌레몬에게 예

12) 콜론 2부터 계속 등장하는 수직적 표지 ‘너희’(ὑμῖν)는 빌레몬은 물론, 압비아와 아킵보를 포함하는 골로새교회를 가리킨다. 바울의 요청에 빌레몬이 결단할 때, 그는 골로새교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I. J. Du Plessis, “How Christians can survive in a Hostile Social-Economic Environment: Paul’s Mind concerning Difficult Social Conditions in the Letter to Philemon,” in J. G. Van der Watt (ed.), *Identity, Ethics, and Ethos in the New Testament* (Berlin: De Gruyter, 2006), 399.

13) 참고로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표현은 11회 등장한다: ‘오네시모’(콜론 13), ‘그를’(콜론 5, 15, 22, 25), ‘아들’(콜론 12), ‘이 사람’(콜론 16), 남성 단수 대격 관대 대명사(콜론 13, 15, 17), 남성 단수 대격 정관사(콜론 14)가 있다.

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끓은 심정으로 간청함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참고. 골 1:1)라고 소개하는 대신 ‘갇힌 자’라고 밝힘으로써, 최대한 중 오네시모와 동일시한다.¹⁴⁾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빌레몬이 골로새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었듯이, 바울은 이제 그가 오네시모를 영접함으로써 자신에게 평안을 주기를 소망한다. 바울에게 있어,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주님과 아버지로서 성도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 수직적 관계에 근거하여 성도 사이에 수평적 관계(형제, 동역자, 동료 군사, 함께 갇힌 자)가 형성되어야 한다.¹⁵⁾

빌레몬서에 일부 등장하는 수평적 표지는 다음과 같다: *δοῦλον* (종[2회]; 23), *ἀγάπη*(사랑[3회]; 5, 8, 11[참고. 콜론 23의 형용사 ἀγαπητόν]), *πίστιν*(믿음[3회]; 5, 6, 7), *ἀγίων*(성도[2회]; 6, 9), *ἀγαθοῦ*(선한[2회]; 7, 20), *ἔγραψα*(내가 쓴다[2회]; 28, 34), *παρακαλῶ*(권면하다[2회]; 11, 12), *πάντας*(모든[2회]; 6, 7), *νυνί*(지금[2회]; 11, 14), *κατέχει*(머물게 하다[2회]; 17, 22). 이상의 10개의 수평적 표지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이 사랑을 행함 곧 선행으로 표현되어함을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사랑’과 ‘믿음’이 빌레몬서의 앞부분에 제한적으로 등장하지만, 서신 전체의 논의에 스며들어 있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몸통 글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간청할 때 빌레몬이 골로새의 모든 성도에게 베푸 사랑과 믿음에 근거하여 호소를 하기 때문이다.¹⁶⁾

14) 참고. ‘갇힌 자’(문 1, 10, 23)를 ‘반-패권적’(counter-hegemonic) 용어로 보는 K. D. Lyons, “Paul’s Confrontation with Class: The Letter to Philemon as Counter-Hegemonic Discourse,” *Cross Currents* 55(2005), 325.

15) M. L. Soards, “Some Neglected Theological Dimensions of Paul’s Letter to Philemon,”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7(1990), 214.

빌레몬서의 25절이라는 짧은 분량을 고려하면, 바울은 23개나 되는 많은 표지들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아래와 같이 도표로 요약된다:

	콜라	절	주제	관련성
A	1-2	1-3	인사	인사-에토스
B	3-9	4-7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서두-파토스
C	10-37	8-22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	본문-로고스
D	38-39	23-25	마지막 인사	결어

위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빌레몬서는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된다.¹⁷⁾ 바울은 1-3절에서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송신자의 신뢰도 즉 에토스를 확보한다. 바울은 4-7절에서 빌레몬이 콜로새의 모든 성도에게 보여준 사랑과 믿음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칭찬한다. 이렇게 긴 칭찬은 바울이 뒤 따르는 몸통 글에서 부탁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빌레몬의 마음을 여는 파토스를 확보한다. 몸통 글인 8-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복과 같은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처럼 용납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청한다. 23-25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투옥된 일군과 자신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빌레몬에게 전하며 마무리 한다.

16) J. T. Burtchaell, *Philemon's Problem: A Theology of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98), 58.

17) 참고. 빌레몬서의 12문장을 서론적 인사(1-3절; 단락 1), 본문(4-22절; 단락 2-6), 결론(23-25절; 단락 6)으로 나누면서, 문 13-14절을 테제로, 17절을 절정으로 파악하는 D. L. Allen, "The Discourse Structure of Philemon: A Study in Textlinguistics", in D. A. Black (ed.), *Scribes and Scripture: New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J. Harold Greenlee*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83, 89.

빌레몬서를 수사학적 구조로 분석하면 서두(exordium), 입증(proof), 그리고 결어(peroration)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학적 구조에 수직적 표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¹⁸⁾

서두	입증	결어
나의 기도(4절)		너희 기도(22절)
너의 사랑(5, 7절)	사랑 때문에(9절)	
선한(6절)	선한 일(14절)	
네 믿음의 교제(6절)		만약 나를 동역자로 여기면(17절)
성도의 마음(7절)	내 심복(12절)	내 마음내장(20절)

위의 수사학적 구조와 더불어, 바울은 자신의 논리적 응집력을 아래와 같은 교차대칭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준다.¹⁹⁾

A 1-3절: 투옥된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동역자를 소개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함
B 4-7절: 사랑함으로써 형제 빌레몬의 동역은 그리스도를 위한 선을 산출함
C 8-10절: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함
D 11-13절: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하여 섬기기 원함
E 14절: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발적 호의로 행하기 원함
D' 15-17절: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와 동역자로 환대하기 원함
C' 18-19절: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자신이 감당하기 원함
B' 20-22절: 순종함으로써 형제 빌레몬은 바울과 오네시모의 유익을 위해서 행함
A' 23-25절: 투옥된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으로 편지를 마침

위의 교차대칭구조를 상술하면 병행 구조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병행 단어는 담론분석의 수직-수평표지들에 표시된 대로 표현

18) F. F. Church, "Rhetorical Structure and Design in Paul's Letter to Philemon," *HTR* 71(1978), 23.

19) J. P. Heil, "The Chiastic Structure and Meaning of Paul's Letter to Philemon," *Biblica* 82(2001), 186-88. 참고로 13절을 빌레몬서의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E. R. 밴들란드/대한성서공회 성서원문연구소 역, "성서본문 분석과 번역에 대한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 접근법: 바울의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성서원문연구』 16(2005), 401.

한다. 먼저 A(1-3절)와 A'(23-25절)의 병행은 다음과 같다: (1) 1절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δεσμοῖ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와 23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ὁ συναικμαλώτος μου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2) 1절과 24절의 '동역자'(συνεργοί), 3절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χάρις ὑμῖν καὶ εἰρήνη ἀπὸ θε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와 25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하기를'(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με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ὑμῶν), (3) A와 A'의 동일한 단어순서(그리스도 예수-동역자-은혜-주 예수 그리스도).²⁰⁾

B(4-7절)와 B'(20-22절)의 역병행은 다음과 같다: (1) B를 마무리하는 7절의 '형제여'(ἀδελφέ)와 B'를 시작하는 20절의 '오 형제여'(ναί, ἀδελφε), (2) 20절의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내장이 ... 평안하게 하라'(ἀνάπαυσόν μου τὰ σπλάγχνα)와 7절의 '성도의 마음/내장이 ... 평안함을 얻어왔으니'(τὰ σπλάγχνα τῶν ἁγίων ἀναπέπαυται), (3) 22절의 '너희 기도로 ... 내가 바란다'(διὰ τῶν προσευχῶν ὑμῶν χαρισθήσομαι)와 4절의 '내가 감사한다 ... 내 기도에(εὐχαριστῶ ... ἐπὶ τῶν προσευχῶν μου).'²¹⁾

C(8-10절)와 C'(18-19절)의 역병행은 주로 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10절과 18절의 '너에게'(σε), (2) 10절의 '나의'(ἐμοῦ)와 18절의 '나에게'(ἐμοί), (3) C와 C' 각각의 중간 구절인 9절과 19절의 '바울'(Παῦλος), (4) 8절과 19절의 '너에게'(σοι).²²⁾

D(11-13절)와 D'(15-17절)의 병행은 다음과 같다: (1) 13절과 15절의 'ἵνα'절, (2) 13절의 '머물게 하다'(κατέχειν)와 15절의 '두다'(ἀπέχειν), (3) 11절과 16절의 '나에게'(ἐμοί)와 '너에게'(σοι).²³⁾

20) Heil, 앞의 논문(2001), 186.

21) 앞의 논문, 187.

22) 앞의 논문, 187.

E(14절)는 (1) D(13절)과 D'(15절)처럼 ἵνα절을, (2) C(8, 10절)와 C'(18, 19절)처럼 대명사 '너의'(σῆς)를, (3) B(6절)처럼 '선하다'(ἀγαθόν) 그리고 B'(21절)처럼 '행하다'(ποιῆσαι)를 언급함으로써 병행을 보인다.²⁴⁾ 빌레몬서의 교차대칭구조에 담긴 병행법 이외에도, 바울은 간접적인 방식의 정중한 부탁이라는 수사학적 기법을 활용한다. 1절에서 바울은 '죄수'라고 스스로 소개함으로써 도망 노예(*fugitivus*)인 오네시모와 사회적 동질성을 확보하며,²⁵⁾ 빌레몬을 '동역자'라 부름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는 설득적 장치를 활용한다. 4-7절의 긴 감사 역시 정중함을 통해 설득하려는 장치다. 그리고 21절에서 바울이 부탁한 내용이 오네시모의 해방 혹은 용납인지 이해하기 모호한데, 이런 모호성도 정중한 설득을 위한 수사학적 장치로 보인다.²⁶⁾

그레이마(A. J. Greimas)의 6개의 행역자(actant) 모델에 근거한 빌레몬서의 심층 구조는 빌레몬서의 바탕에 흐르는 플롯을 보여 주는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3) 앞의 논문, 188.

24) 앞의 논문, 188.

25) 오네시모는 도망 노예로서 주인 빌레몬의 친구(*amicus domini*)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Du Plessis, 앞의 논문(2006), 397-398.

26) 빌레몬서를 'a masterpiece of Greek persuasion'이라 부르는 Burchaell, 앞의 책(1998), 11; A. Wilson, "The Pragmatics of Politeness and Pauline Epistolography: A Case Study of the Letter to Philemon," *JSNT* 48(1992), 113, 115-116

위의 심층 구조분석을 통해서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바는, 바울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빌레몬에게 이전에 오네시모 때문에 입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²⁷⁾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환대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 관계(17절)의 근거인 예수님 위에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기초를 세우고 있기에(5-7절),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논의를 명료하게 전개한다(14, 21절).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변화시켜 화목케 하는 요인이다.²⁸⁾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체험한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투옥시켰지만(행 9:2),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옥에 갇혀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죄의 빛을 속량하셨으므로, 이 화해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마땅히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힌다.²⁹⁾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에 순종할 때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동료 노예 주인들과 그 당시 노예제도였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했다면, 그는 이웃의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부터 당시의 관습을 깬 자라는 불명예를 입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빌레몬이 거느린 다른 노예들의 동요도 감수해야 했는데, 오네시모의 경우가

27) 바울의 논증은 법과 관습이 부여하는 권리(*potestas*) 대신에, 인격적 영향력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권위(*auctoritas*)에 기초하기에 빌레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할 수 있었다(문 8-10, 21). T. A. Brookins, “I Rather appeal to *Auctoritas*: Roman Conceptualizations of Power and Paul’s Appeal to Philemon,” *CBQ* 77(2015), 306-309.

28) 빌레몬서에 기독교적 호칭(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은 11회 나타난다. Still, 앞의 논문(2005), 136, 141; D. W. Pao, *Colossians & Philemo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352.

29) Lyons, 앞의 논문(2005), 331-332.

선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⁰⁾ 빌레몬이 사회가 가하는 이런 불명예에 직면할 경우, 죄수(문 1, 10, 23)와 자발적인 채무자(문 18)와 죄인과 동일시한 자가 되어(문 12, 17) 불명예를 감수했던 자신의 멘토 바울(문 19)을 본받아야 했다.³¹⁾

II.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간본문적 해석

모든 편지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과거에 상호 공유한 경험이 중요하다. 골로새서 4:9는 오네시모가 골로새교회에서 신임을 얻는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히므로, 빌레몬서가 골로새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³²⁾

1.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언어적 간본문성³³⁾

30) D. E. Garland, *Colossians and Philemon*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8), 335.

31) 라이트, 앞의 책(2014), 286;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약함의 수사학’(참고. 고후 13:4; 골 1:21-23)에 관해서는 Pao, 앞의 책(2012), 399-400.

32) 슈틀마허, 앞의 책(1988), 413-416. 그런데 슈틀마허는 골로새서의 익명의 저자가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모방했다고 본다.

33) 골로새서의 바울 저작성과 로마 1차 투옥(A.D. 60-62)의 기록 연대에 관하여 P. T. 오브라이언/정일오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서울: 솔로몬출판사, 2008), 462;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er Erklärungs-bibel mit Apokryphen* (2007), 1783-1784; W. Vosloo · F. J. Van Rensburg, *Die Bybellennium: Eenvolumekommentaar* (Vereeniging: CUM, 1999), 1672; Pao, 앞의 책(2012), 343; D. J. Moo,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8), 364; J. D. G.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6), 300, 308; Garland, 앞의 책(1998), 308을 보라. A.D. 60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이로는 M. Goguel, M. Dibelius, E. Lohse, Bo Reicke 등이며, A.D. 50년대 중반에 에베소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연결하여 간본문적으로(intertextually) 해석할 필요성은 이미 주석가들이 주목한 바인데,³⁴⁾ 아래의 도표는 이 간본문성을 보여준다:

유사 용어와 주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1. 사랑받는 함께 된 종과 일군	1, 24	1:7; 4:7, 11, 12
2.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름	3	1:20
3. 빛	18, 19	2:14
4. 새 사람	11	3:10
5. 그리스도 때문에 중도 자유자도 없음	16	3:11
6.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인내,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을	7, 17, 20, 21	3:12
7.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	5, 7, 9	3:14
8. 종들은 진실하게 주인을 섬김	16	3:22-23
9. 하늘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인은 의와 공평으로 종을 대함	16, 20	4:1
10.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10	4:9
11. 마가,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누가, 아킵보, 데마	2, 23, 24	1:7; 4:10, 12, 14, 17
12. 갇힌 중에 바울이 친필로 전하는 은혜	3, 9, 19, 25	1:2; 4:18
13. 그러나 이제는	9, 11	1:22, 24, 26; 3:8
14. 죄 용서	17	1:14; 3:13-14
15. 수신자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	4-5	1:3-4
16. 공동 송신자 디모데	1	1:1
17. 불의를 행함	18	3:25
18. 바울이 친필로 씀	19	4:18

는 이로는 D. Deissmann, G. S. Duncan, E. Lohse, P. Stuhlmacher, W. Michaelis, J. A. Fitzmyer, N. T. Wright 등이다. 참고. Barth·Blanke, 앞의 책(2000), 124; 라이트, 앞의 책(2014), 249.

34) Barth·Blanke, 앞의 책(2000), 150; Lohse, 앞의 책(1989), 175-176; Pao, 앞의 책(2012), 371; Garland, 앞의 책(1998), 328.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옥중에서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교회에 권면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빛 문서를 없애버리신 화해 사역이다(2, 3, 12). 이 화해 사역 덕분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신분(주인과 종)의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4, 5). 새롭게 된 종은 주인을 친절과 진실로 섬겨야 하며(18), 빌레몬처럼 사랑받는 일꾼이자 주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와 같은 종을 온유와 공평과 의로써 대해야 한다(1, 6, 8, 9, 10).³⁵⁾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7).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여 논란의 중심에 선바 있던 마가를 유익한 동역자로 용납한 것처럼(행 15:36-41; 딤후 4:11),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11, 18).

범위를 좁혀, 바울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한 공통 용어는 아래와 같다:³⁶⁾

용어	빌레몬서	골로새서
1. 사랑	5, 7, 9, 16	1:4, 8, 13; 2:2; 3:12, 14; 4:9
2. 믿음	5	1:4, 23; 2:5, 7, 12
3. 선한	6, 14	1:10
4. 기쁨	7	1:11
5. 은혜	3, 25	1:2; 3:16; 4:6
6. 복음	13	1:6, 23

위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바울은 빌레몬과 골로새교회가 은혜와 복음을 깨달았으므로(5-6), 기쁨으로(4)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여(1-2) 선한 것을 결실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3). 덧붙여 빌레몬서가 짧은 분량인 관계로, 모호한 의미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파

35) M. M. Thompson,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5), 220.

36) T. Y. Mullins, "The Thanksgivings of Philemon and Colossians," *NTS* 30 (1984), 291.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절의 *τὴν ἀγάπην καὶ τὴν πίστιν, ἣν ἔχεις πρὸς τὸν κύριον Ἰησοῦν καὶ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ἀγίους*(‘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 개역 개정)에서, ‘사랑’은 ‘모든 성도’와 연결되고(비교. 골 1:4, 8; 3:14), ‘믿음’은 ‘주 예수님’과 연결된다(비교. 골 1:4, 23; 2:5, 7, 12; 참고. 롬 10:9).³⁷⁾

2.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사회역사적 간본문성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노예제도다(골 3:11; 3:22-4:1).³⁸⁾ 바울 당시에 일반적으로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오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독한 매질을 당하거나, 불에 지져져 낙인이 찍히거나, 수명이 단축될 정도의 노동에 처해지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³⁹⁾ 바르트(M. Barth)와 블란케(H. Blanke)는 오네시모의 미래 형편에 대한 경우의 수 8개를 제시하는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관련된 3가지만 비평적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⁴⁰⁾ (1) 빌레몬은 오네시모

37) Campbell, 앞의 책(2013), 81; 오브라이언, 앞의 책(2008), 477; 라이트, 앞의 책(2014), 266; Garland, 앞의 책(1998), 318-319; Lohse, 앞의 책(1989), 193; Pao, 앞의 책(2012), 368; J. A. Fitzmyer, *The Letter to Philem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96.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과 성도에게 각각 해당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둘 다와 관련된다는 주장은 Dunn, 앞의 책(1996), 317.

38) 참고. 오네시모는 일정 기간 동안 자비로 떠돌아다니는 노예(*erro*)가 아니라 빌레몬의 신뢰받던 매니저였지만 도망친 노예(*fugitivus*)가 되었다고 보는 J. G. Nordling, “Some Matters favouring the Runaway Slave Hypothesis in Philemon,” *Neotestamentica* 44(2010), 85-121.

39)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70; J. D. M. Derrett, “The Function of the Epistle to Philemon,” *ZNW* 79(1988), 74.

40) Barth · Blanke, 앞의 책(2000), 367-368.

를 바울에게 팔거나 선물로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자발적으로 허용하기를 기대한다는 13-14절에 근거할 때, 종을 파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바울이 오네시모를 살 수 있었다면 빌레몬의 자발적인 허락을 굳이 요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대신에 종으로 부리되, 이전에 끼친 손실을 용서하여 그를 친절히 대해주었을 수 있다(참고. 엡 6:9; 골 4:1). 혹은 오네시모의 해방도 추론 가능한데, 바울 당시에 주인이 신실한 봉사를 위해서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권장할 일이었다.⁴¹⁾ (2)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전도자 바울에게 (보수 혹은 무보수로)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빌레몬이 보수를 바라고 바울에게 대여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대여가 아니라 영접해 달라는 바울의 논의를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참고. 17, 21절). (3) 빌레몬은 바울의 애정이 담긴 간청에 감명을 받아서 오네시모에게 해방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런데 해방된 노예는 주인의 집에 더 거할 수 있다는 모세 율법과 달리(출 21:5-6; 신 15:16-18), 로마와 소아시아의 법에 의하면 노예가 자유인이 된 이상 주인의 집에 더 거할 권리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었다면, 하갈처럼(창 16, 21) 거주지를 얻지 못하고 가난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선처를 베풀어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우할 것을 확신하고 있으므로(16, 21절), 오네시모의 형편을 하갈의 경우와 동일시하기 어렵다.⁴²⁾

41) Kea, 앞의 논문(1996), 231.

42) 빌레몬(φιλήμων)의 뜻은 ‘키스하는 자’(kisser)이다.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장을 꿰어놓은 듯이 축은히 여기며 (σπλαγχνίζομαι; 비교. 수직적 표지 τὰ σπλάγχνα) 입 맞추어(καταφιλέω;

빌레몬 2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해방 그리고 더 나아가 오네시모가 자신을 섬기도록 파송되는 것까지 기대하는가?⁴³⁾ 그러나 노예가 해방되더라도 계속하여 가난에 노출되었으므로, 실제 관계에서 이전 주인과 이전 노예 사이에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자유인은 완전한 독립과 자기 통제를 누리지 못했기에, 이전 주인이 어느 정도 그 자유인을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해방을 간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 고전 7:21-22).⁴⁴⁾ 대신 바울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머물더라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 안에서’(ἐν σαρκί) 즉 빌레몬 집에서 법적인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 안에서’(ἐν κυρίῳ), 즉 빌레몬의 가정 교회라는 신앙 관계 속에서도 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문 16).⁴⁵⁾ 바울의 명령 “그(오네시모)를 나(바울)처럼 영접하라”(προσλαβοῦ αὐτόν ὡς ἐμέ, 문 17)는 손님을 친구처럼 환대하라는 의미이다. 환대는 사회

비교. φιλήμων) 환대해준 자비로운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다 (눅 15:20; 그리고 창 50:20). 빌레몬서와 누가복음 15장 사이의 이러한 간본문적 추론은 유사한 용어와 주제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했다면 성찬식 때 서로 교제의 키스를 나누었을 것이다.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97.

43) Du Plessis, 앞의 논문(2006), 408.

44) C. G. De Vos, “Once a Slave, Always a Slave?: Slavery, Manumission and Relational Patterns in Paul’s Letter to Philemon,” *JSNT* 82(2001), 100-102. *Contra Moo*, 앞의 책(2008), 424.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해방시킨 후, 계약을 맺어 자신의 집에 거주하도록 하여 일을 시켰다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추론은 J. M. G. Barclay, “Paul, Philemon and the Dilemma of Christian Slave Ownership,” *NTS* 37(1991), 181. 바울이 오네시모의 해방 그리고 주인과 관계가 개선된 노예로 머무는 상태 둘 다 고려했다는 견해는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95.

45) 오브라이언, 앞의 책(2008), 507; Moo, 앞의 책(2008), 424.

적으로 대등한 지위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동등한 신분을 가진 명예로운 손님처럼 대할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노예 해방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계 개선도 고려했을 것이다.⁴⁶⁾

위의 주장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사용한 용어의 지지를 받는다. 바울이 투옥된 네로 황제 당시에, ‘팍스 로마나’가 유지되려면 계층의 차별과 노예제도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몬 3; 골 1:2), ‘동역자/동료 중’(몬 1, 17, 24; 골 1:7; 4:7, 12), ‘동료 군사’(몬 2), ‘동료 죄수’(몬 23; 골 4:10), ‘아들’(몬 10), ‘자매’(몬 2), ‘형제’(몬 7, 16, 20; 골 1:1, 2; 4:7, 15)라는 평등하고(골 3:11) 가족공동체적 용어를 사용한다.⁴⁷⁾ 바울은 로마제국주의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차별된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을 제시한다. 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의 투옥과 투옥 중의 복음 사역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떨어져있도록(신적수동태 ἐχωρίσθη) 개입하시고,⁴⁸⁾ 예수님이 복음으로써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신다.⁴⁹⁾ 빌레몬서 10절과 11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서로 연결되는데, 유익한 자 ‘오네시모’와 발음이 유사

46) De Vos, 앞의 논문(2001), 103-104; 빌레몬서를 ‘divinely benevolent letter-bomb’라 부르는 Burtchaell, 앞의 책(1998), 32, 334.

47) Bieberstein, 앞의 논문(2000), 112; Thompson, 앞의 책(2005), 234-235; Pao, 앞의 책(2012), 401.

48) Campbell, 앞의 책(2013), 88; Pao, 앞의 책(2012), 393; Moo, 앞의 책(2008), 419; Dunn, 앞의 책(1996), 333; Lohse, 앞의 책(1989), 201. Contra 신적수동태가 아니라 주인 빌레몬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파견된 것으로 이해하는 L. L. Sanders, “Equality and a Request for the Manumission of Onesimus,” *Restoration Quarterly* 46(2004), 111.

49) M. L. Soards, “Some Neglected Theological Dimensions of Paul’s Letter to Philemon,”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7(1990), 219.

한 친족어 *όνίμημι*(‘오니네미’, 문 20)는 빌레몬도 영적으로 유익함을 가리킨다.⁵⁰⁾ 따라서 이 두 단어에서도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의 영적인 평등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아버지인 동시에(문 10), 빌레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생이라는 빛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σαυτόν μοι προσοφείλεις*; 문 19). 따라서 바울의 두 아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형제로서 평등한데, 빌레몬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형제를 용납해야 한다.⁵¹⁾ 바울은 이 평등을 주인에 대한 권면인 골로새서 4:1에서 피력한다. *ισότητα*(‘이소테타’)는 ‘[정치와 정의에 있어] 평등’을 가리키고, *παρέχθε*(‘파레케스쎄’)는 ‘제공하다’는 의미이므로, 주인은 노예에게 평등(equality)한 것을 주라는 의미이다.⁵²⁾ 바울이 과거 형편과 대조할 때 사용하는 ‘그러나 이제는’(*νυνὶ δέ*; 문 11; 골 1:24, 26; 3:8)은 이 평등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 실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⁵³⁾ 바울은 노예제도라는 옛 세상 질서의 실

50) Moo, 앞의 책(2008), 408; 라이트, 앞의 책(2014), 289. 하지만 ‘오네시모’와 10절의 ‘오니네미’를 언어유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오브라이언, 앞의 책(2008), 513,

51) Barth·Blanke, 앞의 책(2000), 116; 라이트, 앞의 책(2014), 284; Brookins, 앞의 논문(2015), 316. 바울 당시에 통상적으로 주인의 개종은 종들의 개종으로 이어졌기에, 빌레몬이 개종했을 때 오네시모도 개종하여 가정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역할은 오네시모의 개종이 라기보다, 신앙 성숙을 돕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N. H. Taylor, “Onesimus: A Case Study of Slave Conversion in Early Christianity,” *Religion and Theology* 3(1996), 267. *Contra* 바울을 만나기 전의 오네시모를 불신자였다고 보는 B. M. Rapske, “The Prisoner Paul in the Eyes of Onesimus,” *NTS* 37(1991), 202;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92; Lohse, 앞의 책(1989), 201; Moo, 앞의 책(2008), 398; Fitzmyer, 앞의 책(2000), 14.

52) Sanders, 앞의 논문(2004), 110.

53) 슈틀마허, 앞의 책(1988), 393; J. G. Nordling, “The Gospel in Philemon,”

재와 계층을 초월한 형제됨이라는 새 세상의 화해가 충만한 질서의 요구를 둘 다 고려함으로써 이 둘의 긴장을 극복한다.⁵⁴⁾

III. 맺음말: 내적간부문성과 간부문성을 통해서 본 빌레몬서

빌레몬서의 1차 독자 빌레몬과 현대 독자는 논리적 응집력을 갖추었지만 짧은 분량으로 인해 바울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를 만날 수 있다. 그 때 빌레몬서 자체의 상호관련성을 살핀 후, 동일한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비슷한 시기와 장소와 수신자를 가진 골로새서와 비교함으로써 의미의 모호성이라는 간격을 매울 수 있다. 후자는 넓은 문맥을 고려한 일종의 정경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용납해 줄 것을 설득의 세 가지 요소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자신의 논의를 흐름에 순차적으로 담아낸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은유와 수사학적 기법(교차대칭구조, 두운법 등)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효과적으로 1차 독자인 빌레몬과 현대 독자들을 설득한다.

(투고일 2016. 9. 24. 최종심사일 2016. 11. 30. 게재확정일 2016. 12. 6.)

CTQ 71(2007), 76.

- 54) U. Roth, "Paul, Philemon, and Onesimus: A Christian Design for Mastery," ZNW 105(2014), 128; A. D. Callahan, "Paul's Epistle to Philemon: Toward an Alternative Argumentum," *Harvard Theological Review* 86(1993, 4), 376.

참고문헌

- 라이트, N. T./이승호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밴들란드, E. R./대한성서공회 성서원문연구소 역. “성서본문 분석과 번역에 대한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 접근법: 바울의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성서원문연구』 16(2005), 365-455.
- 송영목. 『신약해석학: 구원계시사적 해석을 중심으로』. 부산: 신원출판사, 2006.
- 슈틀마허, P./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필레몬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오브라이언, P. T./정일오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8.
- Allen, D. L. “The Discourse Structure of Philemon: A Study in Textlinguistics.” in Black, D. A. ed. *Scribes and Scripture: New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J. Harold Greenlee*.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77-96.
- Barclay, J. M. G. “Paul, Philemon and the Dilemma of Christian Slave Ownership.” *NTS* 37(1991), 161-186.
- Barth, M. · Blanke, H. *The Letter to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0.
- Bieberstein, S. “Disrupting the Normal Reality of Slavery: A Feminist Reading of the Letter to Philemon.” *JSNT* 79(2000), 105-116.
- Brookins, T. A. “I Rather appeal to Auctoritas: Roman Conceptualizations of Power and Paul’s Appeal to Philemon.” *CBQ* 77 (2015), 302-321.

- Burtchaell, J. T. *Philemon's Problem: A Theology of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98.
- Callahan, A. D. "Paul's Epistle to Philemon: Toward an Alternative Argumentum." *HTR* 86(1993), 357-376.
- Campbell, C. R. *Colossians and Philemon: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 Cope, L. "On Rethinking on Colossians Connection." *Biblical Research* 38(1985), 45-50.
- Church, F. F. "Rhetorical Structure and Design in Paul's Letter to Philemon." *HTR* 71(1978), 17-33.
- Derrett, J. D. M. "The Function of the Epistle to Philemon." *ZNW* 79(1988), 63-91.
-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er Erklärungsbibel mit Apokryphen*, 2007.
- De Vos, C. G. "Once a Slave, Always a Slave?: Slavery, Manumission and Relational Patterns in Paul's Letter to Philemon." *JSNT* 82(2001), 89-105.
- Dunn, J. D. G.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6.
- Du Plessis, I. J. "How Christians can survive in a Hostile Social-Economic Environment: Paul's Mind concerning Difficult Social Conditions in the Letter to Philemon." in J. G. Van der Watt ed. *Identity, Ethics, and Ethos in the New Testament*. Berlin: De Gruyter, 2006, 387-413.
- Fitzmyer, J. A. *The Letter to Philem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2000.

- Frilingos, C. "For My Child, Onesimus: Paul and Domestic Power in Philemon." *JBL* 119(2000), 91-104.
- Garland, D. E. *Colossians and Philemon*.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Heil, J. P. "The Chiastic Structure and Meaning of Paul's Letter to Philemon." *Biblica* 82(2001), 178-206.
- Kea, P. V. "Paul's Letter to Philemon: A Short Analysis of Its Values."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3(1996), 223-232.
- Lohse, E. *Colossians and Philemon*. Philadelphia: Fortress, 1989.
- Lyons, K. D. "Paul's Confrontation with Class: The Letter to Philemon as Counter-Hegemonic Discourse." *Cross Currents* 55(2005), 322-339.
- Marchall, J. A. "The Usefulness of an Onesimus: The Sexual Use of Slaves and Paul's Letter to Philemon." *JBL* 130(2011), 749-770.
- Moo, D. J.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8.
- Mullins, T. Y. "The Thanksgivings of Philemon and Colossians." *NTS* 30(1984), 288-293.
- Nida, E. A. et al. *Style and Discourse*. Cape Town: South African Bible Society, 1983.
- Nordling, J. G. "Some Matters favouring the Runaway Slave Hypothesis in Philemon." *Neotestamentica* 44(2010), 85-121.
- _____. "The Gospel in Philemon." *CTQ* 71(2007), 71-83.
- Pao, D. W. *Colossians & Philemo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Porter, S. E.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ritical?: An Evaluation Using Philemon as a Test Case." in Porter, S. E. · Reed, J. T. eds. *Discourse Analysis and the New Testament: Approaches and Resul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47-70.
- Rapske, B. M. "The Prisoner Paul in the Eyes of Onesimus." *NTS* 37(1991), 187-203.
- Roth, U. "Paul, Philemon, and Onesimus: A Christian Design for Mastery." *ZNW* 105(2014), 102-130.
- Sanders, L. L. "Equality and a Request for the Manumission of Onesimus." *Restoration Quarterly* 46(2004), 109-114.
- Snyman, A. H. "A Semantic Discourse Analysis of the Letter to Philemon." in Hartin, P. J. · Petzer, J. H. eds. *Text and Interpretation: New Approaches in th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1991, 83-99.
- Soards, M. L. "Some Neglected Theological Dimensions of Paul's Letter to Philemon."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7(1990), 209-219.
- Still, T. D. "Philemon among the Letters of Paul: Theological and Canonical Considerations." *Restoration Quarterly* 47(2005), 133-142.
- Taylor, N. H. "Onesimus: A Case Study of Slave Conversion in Early Christianity." *Religion and Theology* 3(1996), 259-281.
- Thompson, M. M.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2005.
- Van Rensburg, F. J. · De Klerk, B. J. *Making a Sermon: A Guide for Reformed Exegesis and Preaching*. Potchefstroom: Faculty of Theo-

logy, 2005.

Vosloo, W. · Van Rensburg, F. J. *Die Bybellemium: Eenvolumekommentaar*.
Vereeniging: CUM, 1999.

Wilson, A. “The Pragmatics of Politeness and Pauline Epistolography:
A Case Study of the Letter to Philemon.” *JSNT* 48(1992), 107-
120.

Winter, S. C. “Paul’s Letter to Philemon.” *NTS* 33(1987), 1-15.

■ Abstract

Reading the Letter to Philemon Intratextually and Intertextually

Song, Youngmok
(Kos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 to Philemon in light of intratextuality and intertextuality. First as an intratextual feature, the letter bears a strong logical coherence of which chiasm and rhetorical structures are prime elements. Our intratextual analysis is aided by discourse analysis, a useful method first formulated by J. P. Louw and E. A. Nida. Discourse analysis makes it easi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words and of sentences within the letter to Philemon. Second, an intertextual reading helps us to understand the rhetorical features of the letter. The shortest of all Pauline epistles, this letter presents a particular difficulty for exegetes as they attempt to analyze the meaning of words and expressions. This semantic gap can be filled with an intertextual study. Reading the letter to the Colossians together with the letter to Philemon is essential for the two letters were written by the same author at the same time and in the same place. Thus, intratextual and intertextual readings disclose the ways in which the three components of persuasion, namely *ethos*, *pathos*, and *logos*, pene-

trate through the letter to Philemon. To persuade his Greco-Roman readers to appreciat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hrist's gospel in human relations, Paul makes use of the rhetorical techniques of his time such as the metaphor of God's family and a chiasmic structure.

Key Words

The Letter to Philemon, the Letter to the Colossians, intratextuality, intertextuality, logical coherence